**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14절>

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가 극적으로 좁혀진 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에 울려퍼진 날입니다.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은 조금은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로부터 하나의 명령이 하달됩니다.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 백성들은 인구조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힘없는 유다 백성들도 싫든 좋든 이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갈릴리 나사렛 지방 사람들 역시 각기 자기 조상들의 본거지로 길을 떠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무리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200Km, 걸어갈 경우 목적지까지 최소 열흘이 걸린다고 합니다. 더구나 요셉은 만삭의 약혼녀 마리아까지 대동하고 있었으니, 그의 여정이 얼마나 고된 것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요셉과 마리아는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마리아의 해산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요셉은 묵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관에 그들이 있을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느 초라한 마구간에 자리를 펴게 되고, 마리아는 거기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는 강보로 싸여 구유에 뉘어집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것은 오늘날 힘있는 자들의 횡포로 고통당하는 힘없는 자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뀌리라는 소망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불의한 현실 속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허탄하고 배부른 소리로 들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기자 누가가 들려주는 성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던 날, 천사들은 매우 바빴습니다. 그들은 어서 빨리 그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소식’이라는 말 앞에 몇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 보십시오. 우선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은 또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더구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놀랍게도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입니다.

도대체 그 소식이 무엇이길래 천사들이 저토록 흥분해 있는 것입니까?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날 태어난 아기 예수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히브리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야, 곧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하나 놀라운 것은, 그 ‘구주’요 ‘그리스도 주’이신 아기 예수가 지금 초라한 말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긴장감은 극대화됩니다. 로마제국에서 ‘주’로 불려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 황제 가이사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제국 내의 모든 나라들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사람,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만든 세상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사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말구유의 아기 예수가 바로 ‘주’라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로마제국의 주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예수를 마구간에 태어나게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구약의 메시야 예언을 이루기 위해 가이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와 현실의 권력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탄생의 의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탄생의 과정은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의 태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탄생의 소식은 힘없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왜 비천한 말구유에 뉘어졌습니까? 그것은 이 땅 온 백성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품안에 끌어안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들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쳐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구유의 아기 예수는 진정 이 땅 온 백성의 구주요 주님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날,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천사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온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소수 인간의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권세를 과시하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 없이 저 멀리 높은 곳에 계시는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슬픔과 기쁨에 동참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자,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제 오전에 체코공동체 두분 목사님과 함께 보흐니쩨병원 환우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병동에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전에, 꼴라쉬 목사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그분들에게 읽어주었고, 이어서 제가 그들을 위해 한국말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먼저 체코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정말 믿어지고 느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드러내는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울려퍼진 날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네스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만일 그분이 내 마음에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온 백성의 구주와 주님으로 오셔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 샬롬을 이루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백성의 구주로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주님, 저희 속에도 태어나시길 원하오니, 저희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의 주관자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세상의 낮은 자리에서 주께 받은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신비와 기쁨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의 낮은 자리에서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